◉ 부활제 2주일

예수님을 잃고 실망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참하게 떠나셨는데 자신들은 제자의 도리도 못했고, 그것도 한솥밥 먹던 동기가 일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으며,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 시신까지 없어진데다 유다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로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일뿐입니다. 절망과 공포, 죄책감으로 마음의 문까지도 꼭꼭 닫아걸었을 겁니다. 이 상태라면 그들이 받은 상처는 평생을 갈 것 같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19절) 히브리 말로는 "샬롬 알레켐!"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인사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는 각별합니다. 그들만큼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닌 민족도 드물어서 아침저녁으로 평화를 비는 것을 인사로 나눌 정도입니다.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도 다름 아닌 평화였습니다. 꼭꼭 닫혀 있는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들의 공포는 눈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두려움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닫힌 마음의 문도 열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두고두고 한참 갈 뻔한 상처도 금세 아물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20절). 예수님의 상처는 승리의 표시이고 사랑의 표시입니다. 자랑스럽게 제자들에게 내보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인합니다.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 흔적이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불신앙으로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믿음을 되찾아 불안을 극복하고 닫힌 마음을 엽니다. 신앙은 소신과 확신을 펼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이 잠긴 문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21절) 다시 한 번 그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십니다. 하느님이 예수님을 파견하신 것과 똑같은 소명으로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처럼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 스스로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신 메시아이심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턱대고 거친 세상으로 내몰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22절) 성령으로 제자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정화시키시고 힘껏 세상을 향해 나아갈 큰 기운을 불어넣으십니다. 성령은 예수님 대신이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험한 세상에 성령만큼 큰 힘이 되어주실 분은 없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남아 있을 것이다."(23절)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세상을 용서하라십니다. 당장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할 일이 용서하는 일밖에 없다는 듯이 당장 용서를 실천하라십니다. 얽히고설킨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꼬인 것부터 풀고 깨끗하게 시작하라는 말씀일까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포하는 용서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첫째 관문입니다.

때마침 토마스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25절) 예수님이 주신 평화로 들뜬 다른 제자들의 자랑에, 토마스 역시 직접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직접 뵙지 못했으니 아직 불완전한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드레 뒤 토마스까지 다 모인 날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찾아와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26절). "…보아라.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어라."(27절) 토마스는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대변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만질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젠 만져지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 몸에 집착할 때는 지났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28절) 토마스의 어두운 마음이 환히 열리는 순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고백한 완벽한 신앙고백입니다. 여드레 뒤 두 번째 오신 날, 비로소 예수님은 확신에 찬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29절) 보지 못할 때는 믿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때론 보이는 것이 믿음에 방해가 됩니다.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표징은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표징은 버리고 그 실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실재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나날이 예수님이 불어넣으신 성령에 힘입어 예수님처럼 살 준비를 갖추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게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은 부활한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부속가

파스카 희생 어린양을 모두 다 찬미하세.
어린양이 양들을, 무죄하신 주님, 죄인들을 구원하셨도다. 생명 죽음 싸움에서 돌아가신 생명 주님, 살아 계신며 다스리신다.
말하여라, 마리아.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목격자 천사들, 수의를 난 보았네. 나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갈릴래아로 먼저 가셨네. 주님 정말 부활하심 저희 믿사오니, 자비를 베푸소서, 승리자 임금님.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뇌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주님 부활 감사 기도

이날은 주님의날 참된날이니
거룩한 광명으로 찬란하도다
거룩한 주님피로 세상을씻어
부끄런 세상의죄 사라졌도다
실망한 사람에게 믿음을주고
못보는 사람에게 시력을주며
강도의 흉한죄도 사하셨으니
그어떤 공포인들 남아있으랴
주님의 십자가상 고통을보고
흉악한 죄인마저 매달려비니
생명의 복받음을 지켜보고는
하늘의 천사들도 놀라워하네
더러운 세상의때 씻어주시고
만백성 저지른죄 없애시려고
사람이 사람허물 씻어주시니
더없이 놀랍고도 신비롭도다
죄악이 주님은총 찾아헤매고
사랑이 두려움을 풀어없애며
죽음이 새생명을 되찾아주니
이보다 더귀한일 어디있으랴
예수여 파스카기쁨 마음속깊이
언제나 변함없이 남게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난우리
승리의 깃발아래 모아주소서
죽음을 이기시고빛나시오니
예수여 크신영광 받으옵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세례식 안내

그 동안 열심히 첫영성체를 위해 공부해온 우리 아이들이 오늘 세례식을 갖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 교육관 /사제관 구입 완료

교육관/사제관 구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특히 구입을 위해 수고해주신 이명희 관리 부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 4월 사목회의 안내

오늘 미사 후에 구입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바뇌기도회 안내

▶4월 2일 (수) 7시30분 박용대 형제집

◉ 이인환 베드로 형제 장례미사 안내

자세한 사항은 별지와 공소 클럽을 참조하세요.

◉ 친선볼링클럽 대회 안내

어느덧 교우들과 함께 즐겨온 볼링 클럽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였사오니 많은 교우들의 참가와 성원을 바랍니다.

▶일시: 3월 31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Brunswick Bowling Centre (전년과 동일)

▶문의: 윤명원 행사부장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 매일 미사책 추가 접수

▶신청 ; 박 재영 선교부장 (B)519-578-8690

◉ 공소 인터넷 클럽안내

http://club.catholic.or.kr/seobunews

◉ 주간 전례

▶4 월 1일(화) 저녁 8시, 부활제 2주간 화요일

▶4 월 3일(목) 낮12시, 부활제 2주간 목요일

▶4 월 3일(목) 저녁 8시, 부활제 2주간 목요일

▶4월 5일(토) 낮12시, 성모신심미사

◉성시간

4월 3일 저녁 8시미사와 함께 성시간 실시.

◉ youth group 예비자교리

교리시작 : 3월 30일

신청 : 청소년 부장(이정길 테오필로)

대상 : Gr 7 -Gr 12

◉ME 주말

일시: 4월 11일 오후 7시 - 13일 오후 6시

장소: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지도사제; 정광호(도미니꼬)신부

접수: 미사후 친교실(류원길부부)

지나간 일은 던져 버리세요

"삶이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듯이
사람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
마음의 껍질을 벗어야만 합니다. 지나간 일을
이제 던져 버리십시오.
비록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초대한 삶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삶 말입니다. 덧없이 늙지 않고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 지나간 일을 던지라는 것은
과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삼키라는 뜻입니다. 지난 일들을
꿀꺽잘 삼켜서
어제보다 오늘을 더 새롭게,
더 멋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들은 걷어내고
그 안에 담긴
긍정의 요소들을 찾아내 새로운 자양분으로
삼는 것이 곱게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2008-13 2008. 3. 30.

부활 제 2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 례

해 설 이명희 **차주 해설** 박명옥

화 답 송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도마야 너는 나르 보고야 믿었으나
나를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는
참 행복하도다..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129) 알렐루야 노래하자
봉 헌	(210) 나의 생명 드리니
성 체	(183) 구원을 위한 희생
퇴 장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독 서

3 월 30일	이우원	이희진
4 월 6일	김용하	김희선
4 월 13일	김근효	김순희

봉 헌

3 월 30일	이동기	이정숙
4 월 6일	이우원	이희진
4 월 13일	김용하	김희선

복 사

3 월 30일	하람	수빈
4 월 6일	지홍	한힘
4 월 13일	수빈	지헌